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 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올해로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6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조선 왕릉이 세계적 유산이 되면서 국민적 자긍심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서울 지역에 8기, 경기도 일원에 32기가 18개 지역으로 나누어 분포되어 있는데 연속 유산으로서 위용이 돋보인다 하겠다.

조선 왕릉은 조상을 기리는 한국의 효 사상의 상징이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정통성의 표상이다. 풍수적 전통에 기인한 독특한 건축 및 자연과 어우러지는 경이로운 조경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기준인 완전성과 진정성의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 한편 지금까지 이어

조선 왕릉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현대적 활용

져 행해지고 있는 제례의식 등 무형의 유산을 통해 역사적 전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점도 높게 평가 받았다.

조선 왕릉의 특성은 첫째, 유교와 동양 전통사상의 조화 속에서 발전해 온 역사적·정신적 유산이라는 점이다. 조선 왕릉은 당대 최고의 예술과 기술을 집약하여 조성되었으며 그 조형 방식에서 역사적 변화를 담고 있는 귀중한 유산이다.

둘째, 자연 친화적인 독특한 장묘 전통이 보존되어 있다. 조선 왕릉은 타 유교문화권 왕릉과는 다른 조선왕조 특유의 세계관, 종교관 및 자연관에 의해 자연친화적인 독특한 장묘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다.

셋째,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 주는 능원 조성과 기록문화의 보고이다. 500년 이상 지속하여 만들어진 조선 왕릉을 통해 당대의 시대정신과 통치자의 리더십·문화의식·예술관을 압축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조선 왕릉과 관련된 여러 기록 문헌들을 통해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기술과 사상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넷째, 조상숭배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다. 조선 왕릉 제례문화는 조상숭배 사상에 기인하며 한국민

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형성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에 큰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다섯째, 자연과 인간의 조화, 하늘과 땅의 조화, 이상과 현실의 조화 그리고 과거와 현재·미래를 이어주는 시대를 뛰어넘는 공존의 조화를 통해 역사적 교훈과 시대정신의 송고함을 느끼게 한다. 이를 범고장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현대적 가치로 재창조하여 국민들이 즐겨 찾아가는 역사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만드는 데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 조선 왕릉을 좀 더 친근하게 국민들에게, 세계인들에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내재된 시대정신과 인간 스토리를 발굴하여 재미있고 유익하게 다양한 이야기로 풀어내어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왕릉에 계신 주인공들은 그 시절 최고의 리더였다. 청소년들에게 리더십의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여 미래를 향한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유형적 측면뿐 아니라 사상·정신·의례 무형유산 등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500년 이상을 조선 왕조가 유지되고 재위한 모든 왕과 왕비의 능이 완전히 남아 있는

사라는 세계적으로 조선 왕릉이 유일하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며 미래를 향한 무한한 영감을 불어 넣어주는 역사의 현장이 조선 왕릉이다.

주인공이 묻혀 있는 능침 공간은 주변 산세와 지형에 따라 단릉, 쌍릉, 함장릉, 삼연릉, 동원이강릉, 동원상하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되었으나 대부분은 양 옆과 뒤 쪽의 삼면으로 곡장을 두르고 봉분 둘레에는 봉분을 수호하는 각 두 쌍의 석호, 석양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이외에도 문인석·무인석 및 정자각 등 아주 절제되고 품격 있는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왕릉에 들어서면 흥 살문을 지나 참배하는 모습으로 일렬로 늘어서 있는 소나무들의 모습을 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나무도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고 열심히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능기신제를 일반에 널리 알려 충효사상의 근본으로 가꾸어 점점 메말라 가는 나라 사랑·효 사상을 일깨워 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유교의 정신사적 이상을 현대화·세계화하는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여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김 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원장

맥에 협착증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관상동맥 내에 혈전이 생겨 기존에 좁아져 있던 협착증 부위를 꽉 막음으로써 혈액 공급이 완전히 차단돼 생기는 질환이다.

협심증에서는 심한 운동 시에만 혈액 공급이 부족해 흉통이 생기지만, 심근경색증에서는 혈액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므로 가만히 쉬어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게 된다.

심장근육으로의 혈액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가 30분 이상 지속되면 심장근육이 손상을 입게 되고 6시간~12시간이 지나게 되면 혈액공급이 차단된 부위의 심장근육은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게 된다. 이는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중풍(뇌경색증)과 같은 현상이 심장에 생겼다고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의 원인은 공통적으로 동맥경화이다. 이는 우리 몸 혈관의 안쪽 벽에 노폐물이 달라붙어서 염증을 유발해 혈관이 점차 좁아지게 되는 현상이다.

심장은 우리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일종의 펌프로서 강한 힘을 내기 위해 근육질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심장근육에 많이 해야 할 때에 가슴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에 반해 심근경색증은 관상동

맥이 협착증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관상동맥 내에 혈전이 생겨 기존에 좁아져 있던 협착증 부위를 꽉 막음으로써 혈액 공급이 완전히 차단돼 생기는 질환이다.

협심증에서는 심한 운동 시에만 혈액 공급이 부족해 흉통이 생기지만, 심근경색증에서는 혈액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므로 가만히 쉬어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게 된다.

심장근육으로의 혈액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가 30분 이상 지속되면 심장근육이 손상을 입게 되고 6시간~12시간이 지나게 되면 혈액공급이 차단된 부위의 심장근육은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게 된다. 이는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중풍(뇌경색증)과 같은 현상이 심장에 생겼다고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의 원인은 공통적으로 동맥경화이다. 이는 우리 몸 혈관의 안쪽 벽에 노폐물이 달라붙어서 염증을 유발해 혈관이 점차 좁아지게 되는 현상이다.

심장은 우리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일종의 펌프로서 강한 힘을 내기 위해 근육질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심장근육에 많이 해야 할 때에 가슴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에 반해 심근경색증은 관상동

맥이 협착증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관상동맥 내에 혈전이 생겨 기존에 좁아져 있던 협착증 부위를 꽉 막음으로써 혈액 공급이 완전히 차단돼 생기는 질환이다.

협심증에서는 심한 운동 시에만 혈액 공급이 부족해 흉통이 생기지만, 심근경색증에서는 혈액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므로 가만히 쉬어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게 된다.

심장근육으로의 혈액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가 30분 이상 지속되면 심장근육이 손상을 입게 되고 6시간~12시간이 지나게 되면 혈액공급이 차단된 부위의 심장근육은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게 된다. 이는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중풍(뇌경색증)과 같은 현상이 심장에 생겼다고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의 원인은 공통적으로 동맥경화이다. 이는 우리 몸 혈관의 안쪽 벽에 노폐물이 달라붙어서 염증을 유발해 혈관이 점차 좁아지게 되는 현상이다.

심장은 우리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일종의 펌프로서 강한 힘을 내기 위해 근육질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심장근육에 많이 해야 할 때에 가슴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에 반해 심근경색증은 관상동

기 고

광제사의 사계(四季)



최 산 호 전 옥곡고등학교 교사

나하나 마스하게 다가왔다. ‘그리움만 쌓이네’ 가 끝 곡으로 연주될 즈음 때마침 휘날리는 은행잎은 마치 떠나는 가을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는 듯하였다. 흰으로 빛은 아름다운 음악, 무대 뒤로 펼쳐진 광제사의 가파르지 않은 언덕배기에 펼쳐진 수채화 같은 가을풍경을 온전한 휴식으로 다가온 선물 같은 오우 한나절이었다. 관객들이 자리했던 곳에는 지역민을 위한 작은 북 카페가 들어선다 하는 스님의 말씀에 저절로 합창이 울려졌다.

#봄-두 번째 이야기  
“3월의 바람과 4월의 비가 5월의 꽃을 피웠습니다” 라는 멘트로 막이 열린 이번 음악회는 봄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봄이 무르익은 광제사 범당 앞뜰에서 열렸다. 프로그램은 무지크바우 챔버 오케스트라(김태선 지휘)의 모차르트의 세레나데를 시작으로, 플루트 독주, 클라리넷 협주곡, 성악곡 등으로 다채로웠다. 이른 봄 향기 고운 매화를 신호탄으로 릴레이 하던 범당 주변의 온갖 화초들이 불두화까지 달려와서 범당에 연동 밝아들다 양귀비 악기들의 조화로운 화음이 마구잡이를 부드럽게 순하게 풀어주는 선곡이었다. 한결같이만 놀라운 열정으로 광제사를 일구고 지켜가는 주지스님의 사회에 결여되지 않 철 선생님의 전문적이인 식견이 돋보이는 탁월한 해설도 명품이었

나하나 마스하게 다가왔다. ‘그리움만 쌓이네’ 가 끝 곡으로 연주될 즈음 때마침 휘날리는 은행잎은 마치 떠나는 가을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는 듯하였다. 흰으로 빛은 아름다운 음악, 무대 뒤로 펼쳐진 광제사의 가파르지 않은 언덕배기에 펼쳐진 수채화 같은 가을풍경을 온전한 휴식으로 다가온 선물 같은 오우 한나절이었다. 관객들이 자리했던 곳에는 지역민을 위한 작은 북 카페가 들어선다 하는 스님의 말씀에 저절로 합창이 울려졌다.

#봄-두 번째 이야기  
“3월의 바람과 4월의 비가 5월의 꽃을 피웠습니다” 라는 멘트로 막이 열린 이번 음악회는 봄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봄이 무르익은 광제사 범당 앞뜰에서 열렸다. 프로그램은 무지크바우 챔버 오케스트라(김태선 지휘)의 모차르트의 세레나데를 시작으로, 플루트 독주, 클라리넷 협주곡, 성악곡 등으로 다채로웠다. 이른 봄 향기 고운 매화를 신호탄으로 릴레이 하던 범당 주변의 온갖 화초들이 불두화까지 달려와서 범당에 연동 밝아들다 양귀비 악기들의 조화로운 화음이 마구잡이를 부드럽게 순하게 풀어주는 선곡이었다. 한결같이만 놀라운 열정으로 광제사를 일구고 지켜가는 주지스님의 사회에 결여되지 않 철 선생님의 전문적이인 식견이 돋보이는 탁월한 해설도 명품이었

나하나 마스하게 다가왔다. ‘그리움만 쌓이네’ 가 끝 곡으로 연주될 즈음 때마침 휘날리는 은행잎은 마치 떠나는 가을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는 듯하였다. 흰으로 빛은 아름다운 음악, 무대 뒤로 펼쳐진 광제사의 가파르지 않은 언덕배기에 펼쳐진 수채화 같은 가을풍경을 온전한 휴식으로 다가온 선물 같은 오우 한나절이었다. 관객들이 자리했던 곳에는 지역민을 위한 작은 북 카페가 들어선다 하는 스님의 말씀에 저절로 합창이 울려졌다.

#봄-두 번째 이야기  
“3월의 바람과 4월의 비가 5월의 꽃을 피웠습니다” 라는 멘트로 막이 열린 이번 음악회는 봄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봄이 무르익은 광제사 범당 앞뜰에서 열렸다. 프로그램은 무지크바우 챔버 오케스트라(김태선 지휘)의 모차르트의 세레나데를 시작으로, 플루트 독주, 클라리넷 협주곡, 성악곡 등으로 다채로웠다. 이른 봄 향기 고운 매화를 신호탄으로 릴레이 하던 범당 주변의 온갖 화초들이 불두화까지 달려와서 범당에 연동 밝아들다 양귀비 악기들의 조화로운 화음이 마구잡이를 부드럽게 순하게 풀어주는 선곡이었다. 한결같이만 놀라운 열정으로 광제사를 일구고 지켜가는 주지스님의 사회에 결여되지 않 철 선생님의 전문적이인 식견이 돋보이는 탁월한 해설도 명품이었

社 說

여자친구 감금·폭행 그러고도 의사 된다면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여자친구 폭행사건에 대해 대학 측이 결국 가해 학생을 제적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은 지난 3월 28일에 벌어졌다. 조선대의전원의 한 학생(35)은 같은 의전원에 다니는 여자친구(31)의 집에 찾아가 약 4시간 넘게 심한 폭행을 가했다. 전화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남학생은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근 집행유예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제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 법원의 최종 판단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미처기린 것이다. 법원 선고 후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그제야 대학은 부랴부랴 가해 학생의 제적을 결정했다.

또한 피해 여학생은 가해자 처벌과 함께 수업을 따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최종성 결과과 나오기 전까지는 당사자 문제라

며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 학생의 호소를 학교 측이 외면하는 바람에 가해자와 함께 수업을 받으며 감내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법원의 판결도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4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한 가해자가 의전원 학생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사법부의 낮은 인권의식이 드러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뒤늦게 제적 방침이 정해졌지만 이런 폭력 학생이 나중에 의사가 되어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면- 이는 상상만으로도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으로 현재 대학 내 성폭행이 아닌 일반 폭력에 대한 규정이 없는 탓에 재판을 거쳐 징계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대학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신속하게 징계하고, 서로 대면을 막는 등의 노력으로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광주시 ‘도시 통합적 디자인’ 구축 나선다

광주시가 최근 도시 전반의 건축 등 물리적 환경을 통합·조정하는 도시디자인 자문관 직책을 신설하기로 했다. 문화도시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의 통합적 디자인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약 1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신설된 도시디자인 자문관으로 임명된 인사는 일본 출신의 구니요시 나오유키(67·전 요코하마시 도시정비국 수석디자이너)다. 그는 창의적인 디자인 도시로 명성을 얻은 요코하마시에서 40여 년간 일한 도시디자인 전문가다.

사실 광주는 ‘도시 난개발’이라는 표현 그대로 수많은 건물이 빼곡히 들어차 만들어진 도시다. 짜임새 없이 제멋대로 건물들이 세워진다 보니 외국의 문화도시와 같은 매력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물론 광주시는 도시디자인 계획을 마련해 수년 동안 공을 들였지만 아직까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디자인 자문관

직책을 신설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가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무엇보다 수십 년간 ‘창의도시 요코하마’를 지휘해 온 구니요시의 영입을 통해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디자인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이끌어 내기로 했더니 딱 다행스럽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문화도시의 품격에 맞는 디자인 도시로 거듭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도시디자인의 방향과 컨셉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지만 구 단위로 진행되는 개별사업들과의 조화 등을 위해서는 1인 중심이 아닌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요코하마가 세계적인 창의도시로 성공한 것은 구니요시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 담당 공무원들을 도시정비국이라는 시스템으로 묶어 일관된 행정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도시디자인에 대한 로드맵 마련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전문 공무원제 도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한때 광주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에 가게 되면 낮 뜨거운 모습을 봐야만 했다. 기관장들의 인사말 때문이었다. 문화 행사임에도 지적 자랑하기에 바쁘거나, 혹은 문화 마인드가 없어 엉뚱한 축하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영화제 개막식에서 우린 왜 광주 경제 동향에 대해 들어야 했을까. 기관장들 줄줄이 소개하느라 참석자들을 지치게 하던 행사는 또 얼마나 많았던가. 우리가리 하는 행사면 그나마 덜 창피할 텐데, ‘국제 행사’ 타이틀이 붙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때면 더욱 열

부산영화제에 갔을 때 “지금부터 부산국제영화제를 개막합니다” 이 한마디로 깔끔하게 인사말을 가능하는 부산시장이 너무나 부러웠던 기억이 난다.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총서운’ 개막식 문화는 많이 사라진 듯하다.

하지만 엇그제 신문에 실린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 사진을 보고는 다시금 ‘개막식’에 대해 생각해 봤다. 이날 현장에 다녀온 이가 개관식 때 착잡한 기분이었다는 전화를 했었는데, 그럴 만했다. 상징적 행사인 ‘창조나무’ 퍼포먼스

사신 속 인물은 모두 9명.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당 관계자 2인, 우즈베키스탄 문화부 장관, 광주시장·전남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 2명이다.

어쩌면 단상에 오른 인물의 면면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제·정치 관련도 아닌 문화 행사에 예술인들 한 명 없이, 판박이처럼 기관장 일색인 사진을 보니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전당 설계자인 우규승 건축가의 자리는 객석이 아니라, 바로 저 단상 위였어야 하지 않을까.

얼마 전 스웨덴영 참여할 때면 더욱 열

월제 개막식에 다녀온 지인이 “참 신상 갔다!”며 전해준 이야기가 있다. 광주극장 김기리 회장이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에 이어 축사를 했는데 그녀는 소개받은 회장이라는 호칭 대신 ‘광주극장 할머니’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것이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해 준다.

그런데 축사 사전에 조율 과정이 있었다면 단상에 선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제가 설 자리가 아닌 듯한데요”라며 예술인에게 그 자리를 양보할 이가 있었을까? 음, 괜한 상상을 했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程厚植</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문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